

21세기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21세기 소비자주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21세기 소비환경의 특징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소비자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후, 소비자교육 활성화 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21세기 소비환경과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21세기 소비자환경의 특징으로는, 첫째 소비자시장환경의 복잡성, 둘째 전자상거래 문제, 국제적인 소비자피해 문제 등 새로운 소비자문제의 등장, 셋째 기존 소비자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 환경오염의 심각화로 인한 환경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다섯째 과시소비, 물질주의 가치관 등의 소모적인 소비문화 만연으로 인한 바람직한 소비문화 형성의 필요성, 여섯째 안전한 삶에 대한 소비자욕구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일곱째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II. 소비자교육의 효과

소비자교육은 소비자 개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III. 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고찰

본 연구 결과 21세기 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교육 mission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소비자교육을 통해 어떤 소비자를 길러내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교육 내용 및 주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교육 기관마다의 개별적, 비체계적 교육으로 소비자교육 내용이 중복되거나 빠지거나 하는 점이다. 셋째, 소비자교육자료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인 배포 및 공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 관련 교과목 교사들의 보수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들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보급과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한 재량시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관련시설 또는 주민자치센터 및 각급 학교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소비자교육 강좌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온라인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정보망을 활용한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온라인 원격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케이블 TV 채널을 이용한 소비자교육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소비자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소비자 교육 노력들이 단편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 있는 소비자교육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